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9. 28
제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장 : 최명철
서기관 : 김경미
전화 : 500-1915
쪽수 : 8P
별첨자료 : 있음(10P)

이 자료는 2011년 9월 2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 발표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식품분야 고용 200만명을 달성하는 식품산업 육성 목표 설정 -

< 주요 내용 >

◇ 중장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발표

- (비전)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 (핵심목표) '17년까지 식품산업 시장규모 245조원* 확대, 농식품 수출 200억불** 달성, 식품분야 고용 200만명*** 달성

* ('09) 131조원, ** ('10) 59억불, ***('09) 176만명

- (핵심과제) 4개 분야 23개 과제 추진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강화	소비자정보 제공 및 보호
- 식품 R&D 확대 - 국가식품 클러스터 - 식품인력 교육 - 통계·정보관리 강화 - 민간투자 유도 - 농식품기업지원센터 - 원료공급체계 구축	- 지역전략식품육성 - 농공상 융합형기업 육성 -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 외식산업 육성 - 품목별 가공산업 활성화 1인기업 창업지원	- 농식품 수출확대 - 환식 세계화 -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 전통발효식품 육성 - 기능성식품 육성 - 연관산업 활성화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녹색 식생활 교육 - 인증제도 개편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9월 28일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17년 까지 식품시장규모를 245조원, 농식품 수출을 200억불, 식품산업 고용을 20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매출액은 10년간('00~'09) 연평균 성장률 7.25%를 상회하는 8.25%를 목표

○ 농식품부는 '10년 8월부터 25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 23개 과제를 마련하였고, 9월 23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 먼저,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식품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30~65% 수준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품 R&D를 확대하고, '15년 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식품제조업체 54천개소 중 5인미만 업체가 84.5%('09, 통계청)

○ 정부 R&D 투자를 '09년 약 1,040억원에서 '17년까지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식품소재·가공 등 18개 핵심기술을 우선 개발하여 식품기술을 선진국 대비 8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15년까지 전북 익산에 기능성평가 등 3대 R&D센터를 구축하고, 150여개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매출 4조원, 고용 22천명의 효과가 있는 연구·수출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둘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식품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농수산 식품기업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담보력이 없는 식품기업을 위해 식품모태펀드를 '10년 250억원 수준에서 '17년까지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을 유도하여 식품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

- '12년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신설, 식품기업에 대한 상담·수출·마케팅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여 '17년 까지 매출액 100억 기업 2,000개소로 육성한다.('10년 946개소)

□ 셋째, 식품기업의 원활한 원료조달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상향하고, 해외곡물 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 논에 타작물 재배 장려 등으로 식량자급률을 '10년 54.9%에서 '20년 60%로 확대한다.

-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 138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해외 농장 38만ha를 개발하고, 해외 곡물회사를 설립하여 '15년까지 400만톤(연간수입량의 30%)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넷째, '17년까지 식품산업 인력 10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식품관련 통계를 한 눈에 개괄할 수 있는 통계정보지도를 구축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확충한다.

2.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식품산업이 정체된 농어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품목을 산업화하고,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 '17년까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지역전략식품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도단위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을 검토한다.

- 농어업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제조가공을 연계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도록 '17년까지 매출액 50억 수준의 농공상 융합형 기업 300개소를 육성한다.

□ 둘째, 육가공·유가공·수산물·곡물·인삼·채소 6대 분야 가공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 육가공산업은 축산물 즉석판매장 등 고품질 햄, 소시지 제조·가공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가공·판매를 일관 유통하는 대형 패커(Packer)를 육성한다.

- 유가공산업은 가공용 원료유 지원사업(20만톤/년)과 유청 공동처리시설을 지원하고, 홍콩·대만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 한다.

- 수산물가공산업은 산지 위판장(206개소)의 기능을 수산물 가공·유통시설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권역별로 6개소 육성한다.

- 곡물가공산업은 가공용도에 따라 품목별·지역별 집단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유통·가공업체가 참여하는 대표조직을 육성하며, 수요확대를 위해 유통·외식업체에 소비지·산지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 인삼가공산업은 화장품·의약품 등 신제품을 개발하고, 200ha 이상 규모 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 채소가공산업은 신선 편이 상품 규격화 및 생산품목 전문화를 추진하고, 신선편의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 셋째,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해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하고, 외식산업을 육성한다.
- '17년까지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하여 산지와 수요처간 사이버 식재료 거래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10년 1,000억원)
 - '15년까지 20개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하여 국산 식재료 사용을 유도하고, '11년 말까지 외식산업진흥 법령 정비 및 "외식산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넷째, '17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100개소에 농식품 가공 플랜트를 설치하여 농어업인의 1인 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어업인 대상으로 연간 3~4천명에 대해 시제품 생산·상품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 '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고, 식품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20여개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지원하고,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규모 직수출 체계를 구축하며, 아세안·러·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한다.
 -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수출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품목별 수출선도 조직(20개)을 부류별 대표 수출 전문회사로 육성한다.
※ 팥이버섯 + 새송이 ⇒ 버섯류 선도 조직, 장미 + 백합 ⇒ 화훼류 선도조직
 - 농식품기업지원센터에 한국 식품 해외진출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원료수급을 위해 해외농장개발 등에 식품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 둘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식세계화 역량을 집중하여 '17년까지 해외 한식당 2만여개를 육성한다.('10년도 1만여개)
- '해외 한식당 협의체' 육성, 맞춤형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한식조리특성화 학교'운영, 스타셰프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셋째, 전통발효식품을 산업화하고, 기능성 식품을 4조원 시장으로 육성한다.
- 상품김치 비율 60%로 확대하고('10년 40%), 볶음 고추장 등 현지화된 소스개발 지원 등 김치·막걸리·천일염산업화를 가속화하고,
 - 기능성 식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식품 과학화·제품화 지원, 기능성 소재 종합정보 DB구축을 추진한다.

4.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 ☐ 첫째, 소비자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한다.
- 소비자·생산자·전문가·업계·언론·정부 6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축장 위생 점검 강화 등 소비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민간 주도 녹색식생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국민의 적정 칼로리 섭취 유도를 위한 식단 개발·보급과 홍보를 강화한다.
- ☐ 둘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13년까지 8종으로 통·폐합하고, '12년부터 공통 인증 로고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한다.
- ☐ 마지막으로,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 현재 전체 농산물의 3% 수준인 농산물우수관리제(GAP) 관리 시설·인증 농가를 15%로 확대하고,
- 사육농장·판매점 대상 간소화된 '한국형 HACCP 모델' 보급을 확대하며,
- '14년까지 농장단위로 돼지 이력제를 본격 시행한다.

5. 기대효과

		'10년		'17년
총괄	식품산업 매출액	131조원('09)	⇒	245조
	식품산업 고용	176만명('09)		200만명
	농식품 수출	59억달러		200억달러
인프라 구축	식품기술 수준	선진국의 30~65%	⇒	85%
	국가식품클러스터	-		매출 4조 고용 22천명
	식품산업 인력 교육	2,100명		10만명
	농식품 모태펀드	250억		최대 4,000억원
	매출액 100억이상 기업	946개소		2,000개소
농어업 연계강화	매출 500억 지역전략식품사업단	54개소 (매출평균 340억)	⇒	100개소
	매출 50억 농공상 융합형 기업	-		300개소
	1인 기업 창업 지원 - 가공 플랜트	연 120명 4개소		연 3~4천명 100개소
	사이버 거래소 거래량	1,000억		1조원
글로벌 경쟁력	해외 한식당	1만개	⇒	2만개
	포장김치 비중	40%		60%
	막걸리 국산쌀 비중	33%		50%
	기능성 식품시장	2조		4조
소비자 보호	인증제	18종	⇒	8종
	GAP 시설	총 생산량 3%		10%
	녹색식생활 실천율	10%		60%

참고 1 | 식품산업 현황

□ (식품산업 시장 규모) '09년 131조원('08년 120조원 대비 9.2% 증가)

○ 식품제조업 60.8조원, 외식산업 69.9조원으로 '08년 대비 각각 10.1%, 8.5% 증가

	'01	'04	'05	'06	'07	'08	'09
□ 제조·외식(A+B)	70,326	91,896	89,921	95,274	107,514	119,924	130,637
○음식료품제조업(A)	36,081	43,526	43,668	44,381	48,149	55,212	60,771
○음식점업(B)	34,246	48,370	46,253	50,892	59,365	64,712	69,866
□ 농림어업	37,821	42,020	41,322	41,675	41,589	46,008	49,919

주)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농림어업 생산액(농림수산식품부), (단위:10억원)

□ (국내 주요 식품기업) '10년 매출 1조원 이상 업체는 15개업체

'10년	15개	동원F&B 추가진입
'09년	14개	파리크라상, 대상, 하이트맥주, 남양유업 추가진입
'08년	10개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사, 오뚜기, 롯데제과,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대한제당, 농협사료, 한국야쿠르트

□ (세계 식품산업 시장규모) 약 4.9조 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

○ 세계 식품시장은 IT(3.5조), 철강(0.5)보다 약 1.4~10배 큰 시장

○ 인구증가 및 신흥개발국 성장으로 '20년 6.4조 달러로 성장예상(Datamonitor, '09)

□ (글로벌 식품기업) 미국 Forbes 잡지 선정 2,000개 기업중 CJ제일 제당은 매출액 83억달러로 1,714위

• 세계 100대 기업중 식품 회사는 4개로 Nestle가 1,120억달러 26위, PepsiCo가 578억달러 86위, Coca-Cola가 351억달러 91위, Anheuser-Busch가 368억달러 96위

참고 2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개요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홍암리 일원

□ 사업기간 : '09년 ~ '15년(목표)

□ 규모 : 240만㎡(72만평, 국가식품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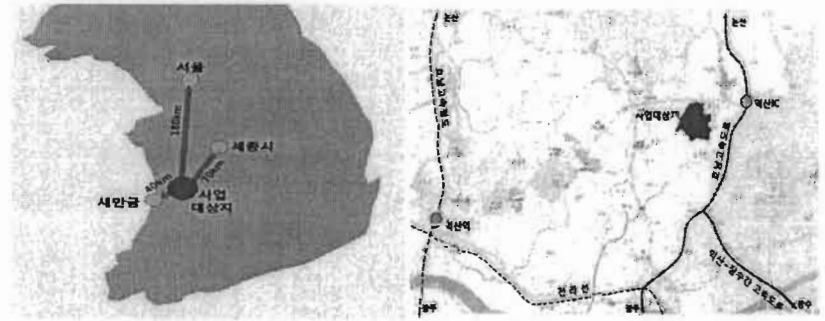
○ 총사업비 : 5,535억원(국고 1,616, 지방비 634, 민자 3,285)

- 산단조성 3,119억원, R&D등 기업지원시설 1,588, 기업지원 서비스 828

□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 위치 : 호남고속도로 익산IC로부터 5분



□ 국내·외 식품기업 145개, 민간연구소 10개 이상 유치

• 고부가 기능성식품군 · 전통발효식품군 · 유기가공식품군 집중 육성

○ 단지 내 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국제적 규모의 6개 H/W 시설 구축 및 특화기술개발사업 등 4개 S/W사업 지원

• H/W시설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 시험생산시설(pilot plant), 임대형공장

• S/W사업 : 인력양성지원, 식품특화기술개발, 기업지원,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생산유발 약 4조원, 22천명 일자리 창출 전망('08.12 산업연구원)

참고 3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 '17년까지 사업단 100개소 육성 목표('05~'11. 67개 사업단 선정·지원)

구분	'05년	'08년	'09년	'11년	계
사업단 수	20개소	22개소	12개소	13개소	67개소

*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품목을 식품 산업화하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개편('10.4)

□ (우수 사업단 1) 안성마춤 클러스터 사업단

- 안성의 5대 농특산물(쌀, 배, 포도, 인삼, 한우)을 종합한 안성마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지자체 공동브랜드 부분 대상 수상, 브랜드 화폐가치 149억원(한국생산성본부)
- 안성마춤 농특산물을 연구개발 하여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
 - 배즙, 배스프레드, 배비누, 홍삼, 한우 비선호 부위 가공 등 제품개발
- 안성마춤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쌀	배	인삼	한우
RPC리모델링 (가공시설 확충)	배즙가공공장 운영 (동외품 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	홍삼가공공장 운영	식육포장시설 운영 (포장을 통한 부가별 판매)

- 사업단 참여업체 연간매출액이 1천억대로 성장 ('05) 470억원 → ('10) 1,086

* 안성시 지역 총 생산액(5,100억원)의 약 20%를 차지(2010년 기준)

<사업단 연락처 : 안성마춤 클러스터 사업단 본부장 010-3726-2674>

□ (우수 사업단 2) 늘푸름 흥천 한우 사업단

- 사업단 참여농가의 주주화와 향후 사업수익의 배당을 통해 참여 주체의 결속력 강화 도모
- (R&D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능성 한우고기 개발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
 - 섭취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늘푸름 오메가3 한우」 개발로 대형백화점(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등 7개 매장)에 독점납품
 - 농가소득 증대기여 : 두당 2백만원(오메가3한우 10,895천원 - 일반한우 8,800천원)

<사업단 연락처 : 늘푸름 흥천 한우사업단장 011-478-9240>

참고 4 | 농공상 융합형 기업육성

□ 추진개요

- (추진배경) '10년말 현재 농어업법인은 7,500개소로 농어업법인은 사업개시 11년 경과후 매출액 하락, 영업이익은 5년후 하락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필요
- (목표) '12년까지 300개 융합기업 발굴육성('11년 목표 : 100개 발굴)
 - 중기청과 정책적 연대를 통해 '11년 상반기에 65개 업체선정

□ 우수사례1(반딧불콩단지 영농조합법인 : 010-4619-7213)

- (사업유형) 네이처플러스 (주)인사이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역할 분담으로 웰빙식품 개발판매

구분	원료조달·제품생산	신제품개발	판매·마케팅
업체명	반딧불콩단지(영농조합)	네이처플러스	(주)인사이트

- (사업내용) 전남무주 지역농산물인 콩을 원료로 호박, 액젓, 새우 등 주요 영양성분이 가미된 저염도 어린이용 웰빙 전통장류(간장, 된장 등) 개발 판매로 소비자 선택폭 확대
 - 특히 저염도 제품으로 인해 성인병에 관심있는 중장년층에도 큰 호응

* '10년 매출(64백만원) → '11년 매출(100백만원 예상)

□ 우수사례2(산새미 영농조합법인 : 010-9622-3311)

- (사업유형) 산새미는 판매마케팅 전문업체인 (주)도투락코리아, (주)제주 명품과 제휴를 통해 자사의 신제품 매출확대 추진
- (사업내용) : 제주지역의 말 부산물(태반 가죽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기능성 제품과 차별화된 지역특화상품(말 태반 농축액, 馬力환, 말가죽제품 등)개발·판매
 - 그간 폐기처분되던 말 부산물을 활용함에 따라 농가부가소득원 창출 및 환경오염방지
 - 말가죽 제품개발(할 횡거 글러브 : 100% 수입)로 수입대체 효과 기대

* '10년 매출(540백만원) → '11년 매출(700백만원 예상)

참고 5 | 전통발효 식품산업 현황

- (전통식품 정의)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 (표준규격) 63개 품목(한과류,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김치류 등)
- (산업규모) '09년도 기준 4.4조원
 - 전통·발효식품 생산액 : ('07) 3.6조원 → ('08) 3.8 → ('09) 4.4 ('08대비 16% 증)
 - 7대 전통발효식품 : ('07) 1.8조원 → ('08) 2.0 → ('09) 2.5('08대비 25% 증)
- (품목별 현황) 7대 식품 :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 천일염, 전통주
 - (김치) 국내시장규모 약 2조3천억원('10년 기준)
 - (장류) 장류산업 출하액은 9,192억원
 - 고추장 3,054억원, 된장 1,702억원, 간장 3,064억원
 - (천일염) 시장규모 약 1,500억원(출고가 기준, '09)
 - 생산면적 약 3,888ha, 가동 업체수 999개(생산자 약 1,200여명)
 - (젓갈) '09년 국내출하액은 2,217억원
-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 %)

구분	품목	2009년		2010년		2010.8(A)		2011.8(B)		증감(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고추장	7,086	14,591	7,577	16,798	4,899	10,741	6,221	14,525	27.0	35.2
	된장	3,482	5,583	3,617	6,111	2,475	4,341	2,708	4,484	9.4	3.3
	간장	9,933	11,733	10,297	11,687	6,750	7,628	6,653	7,928	△ 1.4	3.9
수입	고추장	587	260	625	279	375	168	337	166	△ 10.1	△ 1.3
	된장	3,615	3,797	3,284	3,895	1,868	2,627	2,161	2,600	15.7	22.3
	간장	5,577	6,656	3,727	5,062	1,972	2,298	2,343	3,451	18.8	27.9

참고 6 | 농식품 수출 현황

- '10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58.8억불(전년대비 22.3% ↑)
 - '11.8월 현재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은 46.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
 - 부류별 : 농식품 (40.8억불, 전체의 약 70%) / 수산물 (18.0, 30)
 - 농식품 중 신선 8.7억불(전체 수출의 약 15%), 가공 32억불(약 55%)
 - 국가별 : 일본(18.8억불), 중국(7.9), 아세안(7.2), 미국(5.2), 홍콩(2.4), 러시아(2.4)
- 주요 수출지원사업('11년 기준) : 총 5,725억원 [보조 733, 융자 4,992]

단계	지원 정책
생산	▷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하는 수출선도조직(18개) 지정·육성 ▷ 수출상품화사업 등 유망품목 육성 지원 ▷ 수출 농식품 안전 관리 지원 ▷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원료 구매 및 운영자금 융자(2~4%) 지원 ▷ 수출용 농식품 기술개발 지원(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175억원)
물류	▷ 수출 물류비 지원(표준물류비의 10%) ▷ 해외 냉장·냉동 물류시설 이용료 지원 ▷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중국 청도 지역, '12년 완공)
통관 및 검역	▷ 검역협상을 통해 수입규제 해제(미국 삼계탕) ▷ 고관세 품목에 대한 개선 협상 및 FTA 체결 등
해외 유통	▷ 수출업체들로 구성된 품목별 수출협의회(17개)의 공동마케팅 등 ▷ 수출업체와 현지 유통망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바이어초청, 대형유통업체와의 MOU 등 추진
해외 소비자 구매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미디어 광고, 판촉 등 해외 홍보 마케팅 지원 ▷ 한식세계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참고 7 | 그간의 추진 성과

□ 식품산업이 규제 대상에서 육성 대상으로 전환

- (인프라) 식품 R&D를 농업과 분리하여 기능성 식품 등 6대 전략분야 연구개발을 시작하였고('10년),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으로 민간자본 유입경로를 마련('10년 250억원)

<R&D 성공사례>

세계 두 번째로 과일·채소 선도 유지제 개발, 친환경 식품 위생·소독제 개발, 전통주 제조 전용 누룩 17종 및 천연 조미료 개발

- (수출) '10년 59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일본위주 수출에서 중국·동남아 등으로 수출 다변화
 - ('93) 일본 67%, 동남아 5%, 중국 1% → ('10) 일본 32%, 동남아 12%, 중국 13%
 - 한식붐을 바탕으로 토종 외식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확산
 - 해외진출현황(외식) : ('05) 42개 업체/ 215개 점포 → ('10) 56/993
- (전통발효 식품) 막걸리 '09년도 히트상품 1위로 선정되어 시장규모가 '09년 4,400억원에서 '10년 7,1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하였고 천일염 산업화 시작
 - 또한 고추장·된장·인삼의 CODEX 규격 채택으로 세계화 기반 마련
- (농어업과 동반성장) 식품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재편
 - 안정적 국산 식재료 공급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B2B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aT 사이버거래소를 개설('09.1)

참고 8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문답자료

▶ 농식품 수출 200억불 달성은 무리한 목표가 아닌가?

- 과거 10억불 증가에 20년 이상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10년 전년대비 10.7억불 증가하여 수출은 비약적 증가('88: 32억불 → '08: 45)
 - '08년 이후 수출이 급증하여 J-커브 곡선의 형태 유지
 - 수출액 : ('08) 45억불 → ('09) 48 → ('10) 59 → ('11P) 76
 - 증가율(전년대비) : ('08) 19.6% → ('09) 6.9 → ('10) 22.3 → ('11P) 28.8
- 농식품 수출 200억불은 '11년부터 17.5% 성장률을 가정했을때의 목표('08~'10년 14%)로서,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정부는 대량 수출품목 발굴·지원, 한국 식품 우수성 홍보, 해외식품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
 - 식품업체는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등에 노력 할 필요

▶ 식품산업 매출액을 '17년 245조원, 고용 '17년 200만명을 목표로 하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

□ (매출액) 과거 성장추세에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여 설정

-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으로 과거 추세보다 1% 높은 수준의 성장률인 8.25% 가정할 경우 245억원이 산출(식품제조업 112조, 외식업 133조원)

□ (고용) 식품산업 부가가치 증가분에 고용계수(한국은행, '08년 산업연관표)를 적용

- 부가가치 성장률을 과거 추세보다 1% 높은 5.5%로 가정할 경우 30만명 순증 예상

- '09년 대비 '17년 부가가치 19조원 순증, 30만명의 고용효과를 유발(고용인구 : 기존 176만명+30만명=206만명)

* 부가가치 전망 : ('09) 36.3조원 → ('12) 42 → ('15) 49 → ('17) 55

- 제조업 : 5,500십억 × 6.8명(10억원 당 고용유발계수) = 37,000명

- 외식업 : 13,200십억 × 19.9명(10억원 당 고용유발계수) = 262,000명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특히 중점

-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농공상 융합형 기업 및 농어가의 1인 기업 창업 지원 등 추진

- 또한 국산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해 사이버 거래소를 거래량을 '17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수 외식업지구 선정, 외식산업 육성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

* 식품제조업 10억원 성장시 농림어업분야 3.4억원 생산유발 효과(외식산업 10억원 성장시에는 1.6억원, '08년, 한국은행)

- 신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식품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

- 농식품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수출·마케팅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